

2025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사회과학]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인간 사회의 특성 중 하나는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예측이 사태의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연 세계에서 혜성의 운동에 대한 예측은 그 궤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인간 사회에서는 은행 파산에 대한 예측이 확산되면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하고, 그 결과 재정적으로 탄탄한 은행도 파산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자기실현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의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서로 간에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믿는 두 국가는 군비 증강 경쟁에 나설 것이고, 이는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 특정한 집단이 열등하고 반사회적이라는 믿음하에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이들은 실제로 실패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자기실현적 예언’의 악순환은 사람들의 맹목적 공포에 기반해 강화된다. 이를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입과 조정이 필요하다.

(나) 저주만으로 죽음에 이르는 소위 ‘부두 죽음(voodoo death)’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 주술사에게 공개적으로 저주를 받은 개인은 집단의 전통에 따라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게 되고, 그의 친구와 친척들도 이러한 확신을 공유한다. 그때부터 공동체는 이 저주받은 개인을 이미 죽은 자이자 집단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대한다. 모든 사회적 유대에서 배제되고 사회적 기능과 활동을 박탈당한 결과, 그는 사회적 인간성의 붕괴를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다. 이같이 어떤 주술적 실천은 그 주술에 대한 믿음, 즉 주술의 효력에 대한 주술사의 믿음, 주술사의 힘에 대한 희생자의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주술사와 희생자를 둘러싼 집단 전체의 믿음과 예측에 기반해 효력을 발휘한다.

(다) 많은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예측하고 그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 가게는 가격 상승 전에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우려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노동조합은 최대치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과도한 물가 상승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변동성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물가 안정 목표제 (inflation targeting)’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정해진 기간에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을 공개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원하는 범위 내로 관리하는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연초에 올해의 목표 물가 상승률을 2%로 발표하면 중앙은행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기준에 맞춰 자신의 예측과 행동을 조정할 것이다. 기업은 2%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상품 가격을 정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고려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가게는 소비 수준을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 결과, 연말이 되면 2% 내외의 물가 상승률이 실제로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 1] (가)에 제시된 ‘자기실현적 예언’의 관점에서 (나)의 ‘부두 죽음’과 (다)의 ‘물가 안정 목표제’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문제 2] 사회 현상에 내재한 ‘자기실현적 예언’의 속성을 고려할 때, ㉠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자, 언론인, 정책 입안자, 연구자, 차별 피해자 집단이 각각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이 중 세 집단을 골라 설명하시오.

활용 모집단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소비자학전공, 소비자아동학부 아동가족학 전공, 의류학과)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문항해설	[문제 1] (가)는 사람들의 예측과 믿음이 사태의 전개에 영향을 미쳐 현실화되는 ‘자기실현적 예언’의 속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에 제시된 ‘부두 죽음’은 이러한 ‘자기실현적 예언’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반면, (다)에 서술된 ‘물가 안정 목표제’는 이러한 ‘자기실현적 예언’의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시도로, (가)에 제시된 ‘제도적 개입과 조정’의 일례로 해석할 수 있다. a) (가)에 제시된 ‘자기실현적 예언’의 이해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 (가)에 서술된 ‘자기실현적 예언’은 ‘집단적인 예측과 믿음 → 집합 행동의 변화 → 예측과 믿음의 실현’이라는 원리에 기반해 있다. 따라서 답변자가 ‘자기실현적 예언’을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로 사고하거나 예측이 행동의 변화라는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고 이해한다면 이는 불충분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b) ‘부두 죽음’과 ‘물가 안정 목표제’의 비교 시 유의할 점: 이 두 사례는 모두 ‘자기실현적 예언’의 사례로 볼 수 있지만, ‘물가 안정 목표제’는 ‘자기실현적 예언’의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는 동시에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만약 답변자가 (나)의 ‘부두 죽음’과 (다)의 ‘물가 안정 목표제’ 모두 ‘자기실현적 예언’의 원리에 기반해 있다는 공통점만 지적하거나, (나)의 ‘부두 죽음’은 ‘자기실현적 예언’의 사례이고 (다)의 ‘물가 안정 목표제’는 ‘자기실현적 예언’을 제어하려는 시도라는 단순 대조에 머문다면 이는 불충분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답변자는 관점에 따라, 두 사례 간의 비교 지점을 추가로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부두 죽음’의 사례는 주어진 전통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공포에 기반하지만, ‘물가 안정 목표제’는 개인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제도적 신뢰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답변도 가능할 것이다. 이럴 경우, 해당 답변이 ‘자기실현적 예언’과 관련성이 있는가, 그리고 두 사례 간 비교 지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 2] (가)의 ㉠은 특정한 집단이 열등하고 반사회적이라는 사람들의 믿음과 차별 행위가, 실제 그 집단을 반사회적인 실패자로 만드는 ‘자기실현적 예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답변자는 이를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성소수자, 이민자, 전과자 집단에 대한 차별 등의 사례로 구체화시켜 이해할 수 있다. 이 문항은 사회 현상에 내재한 ‘자기실현적 예언’의 속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행위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따라서 답변자는 차별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공포에 기반한

	‘자기실현적 예언’의 악순환을 막을 대책을 논하는 한편, 그 대안의 모색에 있어서도 ‘자기실현적 예언’의 속성을 활용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기실현적 예언’의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면서도 이를 긍정적 방향으로 활용했던 (다)의 ‘물가 안정 목표제’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답변자가 ‘자기실현적 예언’의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편견 등을 없애고 이들에 대한 ‘객관적’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답변만을 제시하거나, 대안 제시에 있어서 ‘자기실현적 예언’의 속성을 활용하지 않은 채 소수자 차별에 대한 상투적인 해결책 혹은 개인적 차원의 해결책만을 제시하는 것은 불충분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이 차별 집단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기존의 편견을 제어하되, 긍정적 모델 제공, 상호 신뢰 구축, 대중적 인식 변화를 통해 ‘자기실현적 예언’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답변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출제의도	[문제 1] 제시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독해력과 이에 기반해 서로 다른 현상을 비교 분석하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문제 2]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해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교육과정 출제근거	[개념] 사회·문화 현상, 사회 불평등, 사회적 소수자 [출처]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자료출처	[교과서] 고형진 외, 《독서》, 동아출판, 2019, 46-59, 94-105쪽 박영목 외, 《독서》, 천재교육, 2019, 46-55, 82-91쪽 방민호 외, 《독서》, 미래엔, 2019, 74-83, 116-129쪽 서 혁 외, 《독서》, 좋은책신사고, 2019, 52-61, 98-111쪽 한철우 외, 《독서》, 비상교육, 2019, 40-49, 76-83쪽 구정화 외, 《사회·문화》, 천재교육, 2020, 13-14, 143-145쪽 김영순 외, 《사회·문화》, 교학사, 2019, 10-13, 144-147쪽 서범석 외, 《사회·문화》, 지학사, 2020, 13-14, 149-151쪽 손영찬 외, 《사회·문화》, 미래엔, 2018, 12-14, 148-150쪽 신형민 외, 《사회·문화》, 비상교육, 2018, 11-13, 139-141쪽 김진영 외, 《경제》, 미래엔, 2019, 109-113쪽 유종열 외, 《경제》, 비상교육, 2019, 113-116쪽 김종호 외, 《경제》, 씨마스, 2019, 123-126쪽 허수미 외, 《경제》, 지학사, 2019, 112-115쪽 박형준 외, 《경제》, 천재교육, 2019, 118-121쪽

[기타]

한국은행, 《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한국은행, 2021

Robert K. Merton,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Free press, 1968

Claude Lévi-Strauss, 《“The Sorcerer and His Magic” in Structural Anthropology》, Basic Books, 1963

Ben Bernanke et al., 《Inflation Targeting: Lessons from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